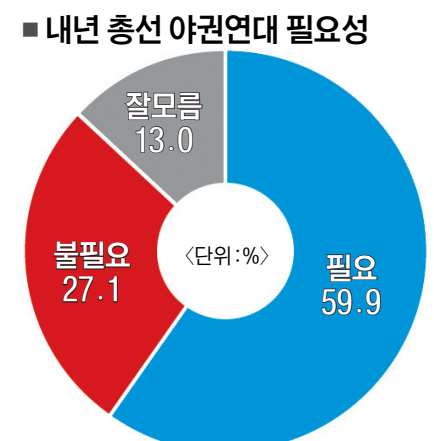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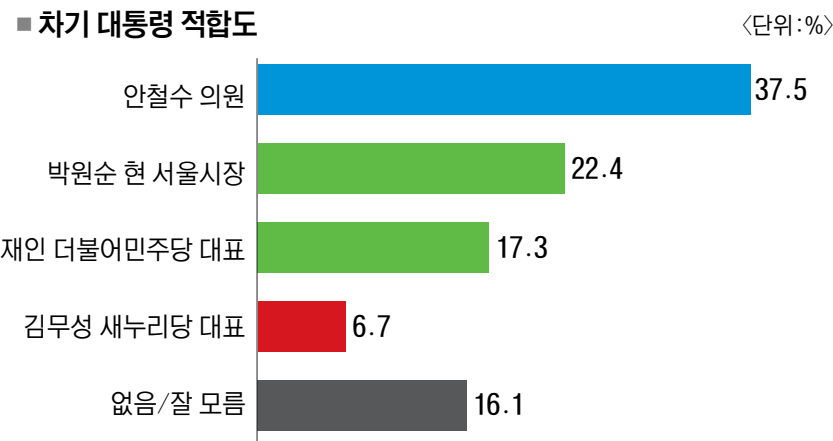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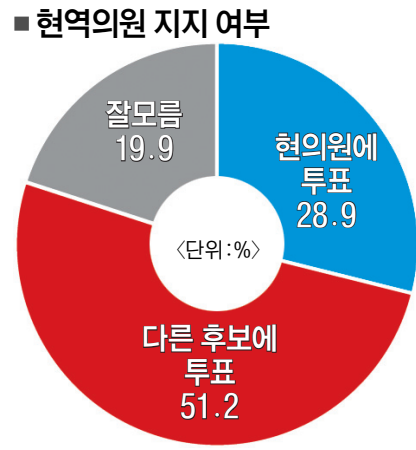


차기 대통령 적합도, 안철수 38%...문재인에 2배 이상 앞서

**'4·13 총선' 호남의 선택
대한민국 미래 바꾼다**
광주일보-리얼미터 여론조사



박원순 22.4% 2위·문재인 17.3% 3위·김무성 6.7% 4위

■ 차기 대통령 적합도

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차기 대통령 적합도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에 두 배 이상의 지지를 받으며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. 제 1 야당의 수장인 문 대표는 박원순 서울시장에도 뒤져 3위를 차지하는데 그쳤다.

‘차기 대통령으로 누가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’는 물음에 대해 안 의원을 선택한 응답자는 37.5%로 선두였으며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자는 22.4%로 2위를 차지했다. 문 대표 지지자는 17.3%로 안 의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.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응답자는 6.7%였다.

안 의원 지지도는 지역별로 광주에서 상대적으로 높

안, 중장년층·남성
문, 젊은층·여성들 선호

아 40.0%였으나 전남은 35.7%였다. 문 대표 지지율도 광주에서 19.9%로 전남 15.6%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. 반면 박 시장 지지도는 전남이 24.2%로 높았다.

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안 의원 지지도는 50대 이상에서, 문 대표는 30대 이하에서 각각 상대적으로 높았다. 안 의원은 50대에서 42.4%, 60대 이상에서 40.2%의 높은 지지율을 받았지만 20대 이하에서는 34.5%, 30대 34.9%, 40대 33.8%를 각각 기록했다. 문 대표의 경우

20대 이하에서 26.1%, 30대에서 28.1%의 지지율을 얻었으나 40대 18.7%, 50대 11.4%, 60대 이상은 8.5%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.

성별로 안 의원 지지도는 남자 쪽에서, 박 시장과 문 대표는 여자 쪽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. 남자의 경우 안 의원, 박 시장, 문 대표가 44.1%, 19.8%, 14.0%의 지지율을, 여자의 경우 안 의원, 박 시장, 문 대표가 31.0%, 24.9%, 20.5%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.

한편, 이번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10여명 내외의 후보를 조사하는데 따른 혼란과 사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유지했던 후보만을 조사 대상으로 선택했다. /최권일기자 cki@

“필요 없다” 광주 33%·전남 23%

■ 총선 야권연대 필요성

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권연대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광주·전남지역 유권자 59.9%가 ‘필요하다’고 판단했다.

‘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’는 질문에 응답자 59.9%가 ‘여당에 맞서기 위해선 필요하다’고 답했다. 반면 ‘노선과 정책이 다른 만큼 야권연대는 필요 없다’고 답한 응답자는 27.1%였다. 응답자 13.0%는 ‘잘 모르겠다’고 응답했다.

지역별로는 전남의 야권연대 추진 필요성 비율이 63.0%로 광주 55.7%보다 7.3% P 높았다. ‘필요없다’는 질문에 대해선 광주가 32.6%로 전남 23.0%보다 9.6%P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.

세부적으로 광주 광산구의 야권연대 추진 필요성 비율이 66.8%로 가장 높은 반면 북구는 42.6%로 가장 낮았다.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야권연대 추진 필요성에 대해 더 높은 비율을 보였다. 여성의 야권연대 추진 필요성 비율은 60.5%였으며 남성은 59.3%로 분석됐다. /이종행기자 golee@

야권 신당에 밀린 더불어민주당 호남서 제2당 추락 가능성

■ 총선 정당 지지도

총선 정당지지도에서는 아직 탄생하지도 않은 ‘안철수 신당’이 41.9%로 선두를 차지했다.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9.4%, 천정배 의원의 ‘국민회의’가 5.2%로 뒤를 이었다. 정의당은 4.9%, 새누리당은 4.8%, ‘박주선 신당’은 1.5%, 박준영 전 전남지사의 신민당은 0.5%에 머물렀다. 기타 정당은 4.0%. ‘지지정당 없음’은 7.8%였다.

‘내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어느 정당 후보를 지지하겠느냐’는 질문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유권자가 현재 창당이 추진되고 있는 야권 신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조

사돼 야권 재편이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. 반면, 현재 호남에서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제 2당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.

신당 사이에서도 ‘안철수 신당’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반면, 천정배·박주선 의원과 박준영 전 전남지사가 창당을 추진하는 신당의 지지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지역별로는 ‘안철수 신당’의 경우 광주에서 45.3%로 전남(39.3%)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. 신당 바람이 광주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된다. 세부적으로는 광주에서도 광산구(51.

4%)·남구(50.3%)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동구(30.1%)는 낮았다. 연령대별로는 ‘안철수 신당’은 32.3%(20대 이하)→ 36.6%(30대)→ 39.8%(40대)→ 47.9%(50대)→ 48.2%(60대 이상)로 고령층으로 갈수록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‘54.1%→ 38.2%→ 27.2%→ 17.4%→ 18.9%’로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지지율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다.

성별로 분석할 경우 ‘안철수 신당’은 남성(46.9%)으로부터 여성(37.0%)보다, 더불어민주당은 여성(34.4%)으로부터 남성(24.2%)보다 각각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도를 얻었다. 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광주 광산구 68% 바꿔 열풍 거세

60대 이상은 현역의원 지지 42%로 높아

■ 현역 국회의원 재지지도

광주·전남지역 유권자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재지지도는 28.9%에 불과한 반면 교체를 희망하는 비율은 과반인 51.2%나 되는 것으로 조사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렸다.

‘현재의 국회의원이 내년 선거에 다시 출마한다면 현 의원에 투표하겠느냐’는 질문에 대해 28.9%는 ‘현 의원에 투표한다’고, 51.2%가 ‘다른 후보에게 투표한다’고 각각 답했다. 19.9%는 ‘잘 모르겠다’고 응답했다. 공천 과정에서 인위적 교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현역 의원에 대한 재지지도마저 낮게 나와 올 총선에서 현역 교체비율은 어느 총선 때보다 높아질 것이라 전망을 가능하게 했다.

지역별로는 광주의 교체 희망 비율이 57.0%로 전남(47.0%)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. 전남은 32.8%, 광주는 23.5%만이 각각 현역 의원에 재지지도 의향을 보였다. 표본 수가 작아 큰 의미를 둘 수는 없으나

세부적으로 교체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67.9%의 광주 광산구였고 광주 남구(62.9%)·동구(58.5%)가 뒤를 이었다. 현역 의원 재지지도가 가장 낮은 곳은 광주 동구(17.2%)와 북구(18.7%)였다. 반면 광주 근교권(36.4%)·서남권(34.8%)·동남권(33.5%)은 현역 의원 재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. 그런데 교체 희망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 광산구는 현역 재지지도(28.9%)도 광주에서 가장 높아 눈길을 끌었다. 때문에 ‘잘 모르겠다’는 응답은 3.2%에 불과했다. 광주 남구도 교체 희망 비율(62.9%)과 현역 재지지도(26.0%) 모두 상대적으로 높았다. 성별로 현역 교체 비율은 남성(55.8%)이 여성(46.8%)보다 높았다. 여성은 25.1%, 남성은 14.6%만은 ‘잘 모르겠다’고 답했다.

연령대별로 살펴봤을 때 30대에서 67.8%로 교체희망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(55.1%)가 뒤를 이었다. 현역 의원에 대한 재지지도는 60대 이상에서 41.8%로 가장 높았다. 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■ 여론조사 어떻게 했다

광주 436명, 전남 624명 표본
유·무선 전화 자동응답 조사

‘광주일보 2016년 신년기획 정치현안 여론조사’는 오는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야권의 분열, 신당 출현 등 급변하는 정치상황에 대한 광주·전남지역민들

의 여론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,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(주)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했다.

조사는 12월 28일과 29일 이틀간에 걸쳐 광주·전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6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유·무선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. 이중 유선 응답은 80%, 무선 응답은 20%였다.

조사표본 추출은 광주·전남지역의 성, 연령별, 지역

(구·군)별 유권자 구성비에 기반한 비례할당추출 후 무작위 추출법을 사용했으며, 유·무선 전화 임의전화걸기(RDD)방식을 활용했다.

선정된 표본은 광주 436명, 전남 624명이었으며, 통계보정은 성별, 연령별, 지역별 가중치(2015년 10월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)를 부여했다.

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 내에 ±3.0%포인트이며, 응답률은 5.5%였다. /최권일기자 cki@kwangju.co.kr

비전과 열정이 있는 기업, 한전KPS
오늘을 넘어 미래를 봅니다!

창조적 선도기업 한전KPS
세계를 이끌어가는 앞선 기술과 최고의 인재들로
초일류 전력서비스 정비전문회사로 거듭나겠습니다.

www.kps.co.kr |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11 (빛가람동 377)

한전KPS주식회사